

“오월 친구들 광주 방문 환영”…5·18 45주년 민주대축제로

시 “광주 넘어 미래세대 초대”…차 없는 거리·시민 난장 등 다양한 행사
연극·전시회도…부산·안산·광주 화합 대합창, 중앙초엔 ‘오월 텐트촌’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광주를 넘어 미래세대를 초대하는 특별한 행사로 열린다.

지난해 12·3비상계엄으로 응원봉, 선결제 등으로 다시 소환된 오월정신을 계승한 이들의 발길이 광주를 향하는 것에 대비해 풍성한 오월 민주주의 대축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145개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이어진 계엄과 내란정국에서 5·18광장을 가득 채웠던 햇볕은 응원봉으로 변화했고, 대동정신의 상징인 주먹밥은 선결제 문화로 승화했다는 점에서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슬로건은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Ah May, The May We Meet Again)’로 정해졌다.

기념행사도 이에 맞춰 5·18의 중심지인 금남로를 배경으로 다채롭게 준비됐다.

17일 오전 11시부터 5·18민주광장, 동구 금남로1~3가 차 없는 거리, 동구 중앙로 일대에서 1980년 시민자치의 나눔공동체 대동세상을 구현하는 ‘시민난장이 재현된다’.

시민난장은 시민참여 거리버스, 오월연극제, 민주주의 대합창, 민주미술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오월연극제’에서는 5·18을 알려준 광주의 대표 극단들이 5·18을 문화로 승화했다.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의 연극을 볼 수 있다.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 극단 토박이의 ‘오! 금남식당’, 극단 깍지의 ‘광대’, 푸른연극마울의 ‘나와 어머니와 망월’ 등이 공연된다.

부산 ‘박종철합창단’, 안산 ‘4·16합창단’, 서울 ‘이소선합창단’과 ‘6·15합창단’, 광주의 ‘1987합창단’, ‘흥사단기러기합창단’, ‘푸른솔합창단’이 함께 하는 ‘민주주의 대합창’은 17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폭력과 재난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노래로 풀어낸다.

오후 4시부터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남로로 햇볕행진했던 민족민주화성회인 ‘민주평화대행진’이다 시 진행된다.

‘민주평화대행진’은 과거와 달리 올해는 참가단 체별로 5곳(광주·북동성당·조선대·전남대·광주역)에서 출발하며, 출발지별로 현수막과 피켓, 깃발 등을 준비해 전야제가 열리는 금남로로 집결한다.

오후 5시부터는 5·18기념행사의 꽃인 ‘전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전야제는 금남로4가역 교차로 4면을 이용한 무대에서 민주주의의 연원인 오월광주를 찾는 전국의 민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17일 중앙초등학교에서는 ‘오월 텐트촌’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소년의 길’ 조성, 주먹밥 나눔 및 빵 할인행사를 추진해 광주시민은 물론,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일상 속에서 5·18의 연대와 나눔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오월광주 특별체험 기획행사도 17·18일 이틀간 광주지역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및 교통약자이동차량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7일 오전 10시30분 국립5·18민주묘지에



5·18묘지 둘러보는 외국인들

제45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1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묘역을 둘러보며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시민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애도하는 ‘5·18민주화운동 추모식’이 열린다.

18일 오전 10시에는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5·18민주광장에서는 오후 5시 ‘민주의 종타종식’이, 오후 7시 ‘2025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많은 이들이 80년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말하지만 광주는 80년 5월 고립됐던 광주를 손잡아준 많은 이들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꽃피울 수 있었다”면서 “계엄과 탄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목에서 맞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이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오월친구들의 광주방문을 기대하고 준비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힘 대선후보 ‘교체쇼’에 누리꾼들 패러디 ‘붓물’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교체 쇼에 대한 누리꾼들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심야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행태를 비꼬는 패러디 글과 비판성 메시지,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11일 오전 5시에 엑스(X·옛 트위터)에 “주요 이슈를 전부 관통하는 달걀”이라는 제목으로 “느그 대선후보 유심칩보다 교체하기 쉽더라”고 쓴 글을 캡처해서 올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에 따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덕수 후보로 교체됐다가 당원 투표를 통해 하루도 안 돼 부결된 행태를 최근 SKT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칩 교체에 빗대 꼬집은 글이다.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X에 “한덕수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의 공천개입 의혹 녹취를 패러디해 올린 것으로, 당시 녹취는 윤 피고인이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와 한 통화를 통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누리꾼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은 나랏돈으로 “웃픈”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립 코미디제작소다. 이 국립제작소가 있는 한 코미디계는 전멸이다. 나는 코미디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에 반대한다. 민영화가 답이다’고 썼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올 5·18 행사 역대 최대 규모로 연다

오월 영화 상영·체험 프로그램 등

전남대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개교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를 연다.

전남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남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광주 곳곳에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광주시, 북구, 5·18기념재단, 전남대총동창회, 전남대민주동우회 등이 동참한다.

행사는 민족·민주화성회 기간(14·16일)과 5·18 항쟁 기간(17·18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4일에는 그날의 벽화 그리기(5·18 광장 및 민주마루 앞), 릴레이 한현 나눔(도서관 별관 앞), 오월 영화 ‘서울의 봄’ 상영(전남대 5·18 광장) 등 행사가 열린다. 영화 상영 행사에서는 열사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오월 퀴즈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6일에는 전남대 제45주년 5·18 기념식(응봉

홀), 대동 주먹밥 나누기(5·18 광장)를 비롯해 대학구성원들끼리 캠퍼스 내 역사적 동선을 따라 걷는 민주길 투어를 진행한다. 민주길 투어에는 전남대 명예철학박사를 수여받을 예정인 우원식 국회의원장이 동참한다. 17일에는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행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을 하고, 18일에는 전남대 서울동창회 소속 졸업생들이 교내 민주길을 따라 민주길 투어를 한다.

전남대는 오는 25일까지 추모객 편의를 위해 민주길 코스에 있는 주요 교내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할 방침이다.

이근배 총장은 “이번 5·18 주간 행사는 오월정신을 단지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가 직접 체험하고 공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을 몸으로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전남대가 지닌 역사적 책임 위에서 세대 간 연대와 참여를 통해 그 가치를 계승하고, 오늘의 언어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뇌물수수 혐의 전 광주경찰청장 대법서도 무죄

사건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59)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사건 브로커’ 성모(64)씨로부터 광주경찰청 소속 전직 경감 B(56)씨에 대한 승진 청탁 등 명목으로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는 “성씨에게 1000만원을 준 사실은 맞지만 A씨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성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성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의 여죄 또는 지인들에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백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평소 친분이 깊은 치안감을 무고하면서까지 허위 자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뇌물 수수 증거는 성씨의 증언이 유일한데, 성씨의 증언은 금품을 제공한 날짜, 방식 등이 계속 엇갈리는 등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와 함께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성씨는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